

유아 스트레스의 관련 변인 연구

Relevant Variables of Young Children's Stress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전공
석사 박소영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문혁준

Major of Child & Famil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raduate Student : Park, So Young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Moon, Hyuk J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sex, age, birth order, temperament), parents (education level, employed or unemployed mother,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family (income) relate to young children's stress levels and to examine the relativ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young children's stres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87 young children, aged from 3 to 5 years old, selected from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Busan.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Young children's stress was correlated with young children's sex, age, birth order and temperament. (2) Young children's stress was correlated with parenting behaviors. (3) Young children's stress was not correlated with income. (4) Children's emotionality and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wer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stress experienced by boys and girls, respectively. (5)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variable affected both sibling and only children's stress.

주제어(Key Words): 스트레스(stress), 기질(temperament),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So-Young Park,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an 43-1 Yokkok2-Dong Wonmi Gu, Buchun City 420-743, Korea Tel: 82-32-340-3409 Fax: 82-32-340-3485 E-mail: 1004psy@hanmail.net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사회의 빠른 변화와 개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스트레스가 일상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유아에게 빨리 성장하도록 압력을 주고,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점점 유아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모와 교사가 사소하게 생각하여 무심하게 넘기는 일로 아이들은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받곤 하며(Johnson, 1993; Medeiros, Porter & Welch, 1983), 성장을 재촉하기 위해 과도한 학습량을 요구할 때 아이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Elkind, 1987; Lzenberg,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이나 학문 분야에서 유아의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민하영·유안진, 1999).

유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아변인, 부모변인 그리고 가정변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 유아변인으로 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에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Burt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0) 결과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전체 스트레스 행동을 더 많이 보여주었으며, Rutter(1979)의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에 비해 일정한 스트레스 자극에 더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초등학교 학생이 되면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 사건을 더 심각하게 지각한다고 한다(Brown, Cowen, Hightower, & Lotyczewski, 1986; Yamamoto, 1979). 국내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트레스와 성별에 따른 차이유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양혜영과 정승원(1999)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행동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전체 스트레스 행동 뿐만 아니라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을 보다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에 박미정(2001)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전체 스트레

스 행동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천민필(1993)과 손정희(1994)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개인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높았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Parteno(1987)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자극의 유형이 다르다고 하였다. Wallen(1993)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자극 받을 수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상처받기 쉽다고 한다. Grune과 Brooks(1985)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과업수행에 대한 걱정과 그들의 개인적 용모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출생순위와 유아의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천민필(1993)의 연구에서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출생순위가 막내인 아동보다 더욱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강의(1998)는 순위형제의 경우 동생의 출현으로 인해 가족의 관심을 상실하면서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동생에게 난폭해지거나 심한 정서적 불안정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고, Dunn과 Kendrick(1982) 또한 첫째 아동이 동생보다 광범위한 정도의 적대감과 더 많은 질투심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기질과 유아스트레스간의 관련성에 대해 Gunnar와 그의 동료들(1992)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 부모와 격리되었을 때 화를 내거나 우는 등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으나, 순한 기질의 유아들은 부모와의 격리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희정(1998)과 원영미(1990)의 연구에서도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순한 기질의 유아에 비해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트레스 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내고,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현정(1996)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부모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유아가 스트레스를 보일 수 있다고 하여 기질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서 유아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부모변인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

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이 제시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천민필(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에게 과잉기대를 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준 반면 고영미(1995)의 연구는 대졸 어머니의 유아가 다소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한미현·유안진(199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인숙(1992)과 Honig(1986)의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전업주부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은(McHale, Rao, & Krasnow, 2000) 자녀의 전반적인 행동 특성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Sears, 1965; Maccoby, 1980) 자녀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주요 설명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변인에는 월수입 즉, 경제적 수준이 연구되어 왔다. 염현경(1998)의 연구에서 월수입이 낮은 가정의 유아가 수입이 높은 가정의 유아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사회 경제적 상태에 있는 유아들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유아들보다 불리한 환경과 더 많은 요구 때문에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정미, 1996; Medeiros et al., 1983).

종합해 보면, 유아의 스트레스와 배경변인들 각각의 부분적 관계와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이루어져 왔으나 유아의 스트레스와 배경변인, 유아의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총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3세에서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 부모변인(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변인(월수입)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남아와 여아의 스트레스를 분리하여 성별에 따른 유아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형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어 형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Dunn, 1992)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자녀를 적게 갖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면서 외동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즉, 1995년까지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이 절반(50.1%)을 넘었으나 2000년부터 한 자녀가 절반(55.5%)을 넘었다(공세권, 1992). 이러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형제의 유무가 아동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ndler, 1980). 그러므로 형제의 유무에 따라서도 영향력을 탐색해 봄으로써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스트레스를 완화 또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학부모, 부모교육 관계자 그리고 유아관련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방안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토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유아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 부모변인(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변인(월수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유아의 성별과 형제유무에 따라 유아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 부모변인(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변인(월수입)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의 어머니 28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 구성은 남아가 142명(49.5%), 여아가 145명(50.5%)으로 비슷하였으며, 유아의 연령은 만3세 88명(30.7%), 만4세 91명(31.7%), 만5세 108명(37.6%) 순으로 만5세가 가장 많았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외동아 71명

(24.7%), 첫째 96명(33.4%), 둘째 이상이 120명(41.8%)으로 둘째 이상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대상 가족의 인구학적 배경으로 어머니 연령의 경우(M=35.09, SD=3.56) 31~35세가 149명(52.0%), 아버지 연령의 경우(M=37.89, SD=4.00) 36~40세가 144명(50.2%)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128명(44.6%), 대학교 졸업이 151명(53.7%), 대학원 졸업이 8명(2.7%)이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94명(32.8%), 대학교 졸업이 176명(61.3%), 대학원 졸업이 17명(5.9%)으로 연구대상 유아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이 과반수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에 무직·전업주부가 137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 52명(18.1%), 전문기술직 49명(17.1%), 사무·행정관리직 44명(15.3%), 생산직 5명(1.8%) 순이었고, 아버지의 경우 사무·행정관리직이 114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산직 69명(24.0%), 서비스·판매직 65명(22.7%), 전문기술직 32명(11.1%), 무직 7명(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소득에서는 199만원 이하 101명(35.2%), 200~299만원 102명(35.5%), 300~399만원 50명(17.5%), 400만원 이상 34명(11.8%)으로 나타나 200~299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포괄적인 내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현경(1998)이 개발한 '한국형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5문항, '불안·좌절감 경험함' 12문항, '자존감 상함'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의 응답을 '전혀 받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많이 받음'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23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 α 는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이 .80, '불안·좌절감 경험함'이 .76, '자존감 상함'이 .80이었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Buss와 Plomin (1984)이 개발한 유아용 EAS를 한세영(1995)이 수정·보완한 기질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척도는 정서성(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말하며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5문항, 활동성(활력과 민첩함에 관련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5문항, 사회성(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을 말하며 사회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에 해당하는 기질 특성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유아의 기질의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 α 는 정서성이 .68, 활동성이 .73, 사회성이 .83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이숙(1990)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지도' 9문항, '애정' 9문항, '권위주의적 통제' 9문항, '과보호' 9문항 등 총 36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 α 는 합리적 지도 .83, 애정 .83, 권위주의적 통제 .76, 과보호가 .70이었다.

3. 자료분석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는 SPSS 10.0을 사용했으

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각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α 로 구하였고,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아변인, 부모변인, 가정변인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 F검증, Schéffe검증,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유아의 스트레스의 총점 평균은 3.62점으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 별로 보면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의 점수 모두 3.5점 이상으로 대다수의 유아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87)

변인	통계치	가능한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불안·좌절감 경험	12~60	3.59	.48
	자존감 상함	5~25	3.55	.75
	총 점	22~110	3.62	.16

1. 유아변인과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 '자존감 상함'에서 남아와 여아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M=3.66, SD=.63)가 남아(M=3.45, SD=.71)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 상함'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t=-2.63, p<.01)를 보여주었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F=3.26, p<.05)과 '불안·좌절감 경험'(F=8.38, p<.001)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F=4.3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Schéffe 검증결과 '불안·좌절감 경험'에서는 만3세가 만4·5세와 차이가 나타났고,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만3세와 만5세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에서 첫째 유아와 둘째 이상 유아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첫째유아(M=3.84, SD=.60)가 둘째 이상의 유아(M=3.65, SD=.66)보다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t=2.20, p<.05)를 보여주었다.

유아의 기질과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정서성에서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r=.22, p<.01)과 '유아의 스트레스 총점'(r=.20, p<.05)에서 유의

<표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N=287)

유아의 스트레스	성별	남 (N=142)		여 (N=145)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3.73	.66	3.77	.64	-.54
	불안·좌절감 경험	3.59	.52	3.59	.44	-.07
	자존감 상함	3.45	.71	3.66	.63	-2.63**
	총 점	3.59	.52	3.65	.46	-1.02

**p<.01

〈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N=287)

유아의 스트레스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만 3세	88	3.90	.60	3.26*	
		만 4세	91	3.68	.69		
		만 5세	108	3.70	.63		
불안·좌절감 경험		만 3세	88	3.76	.46	8.38***	a
		만 4세	91	3.56	.48		b
		만 5세	108	3.49	.46		b
자존감 상함		만 3세	88	3.56	.65	.22	
		만 4세	91	3.51	.73		
		만 5세	108	3.58	.64		
총 점		만 3세	88	3.74	.57	4.31*	a
		만 4세	91	3.57	.51		ab
		만 5세	108	3.56	.48		b

*p<.05, ***p<.001

〈표 4〉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N=216)

유아의 스트레스	출생순위	첫째 (N=96)		둘째이상 (N=12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3.84	.60	3.65	.66	2.20*
불안·좌절감 경험		3.64	.45	3.52	.47	1.86
자존감 상함		3.58	.55	3.54	.72	.47
총 점		3.68	.42	3.56	.50	1.82

*p<.05

〈표 5〉 유아의 기질과 유아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수

(남N=142, 여N=145)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남	여	남	여	남	여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22**	.09	.06	.05	.07	.15
불안·좌절감 경험		.16	.25**	.13	.02	.16	.17*
자존감 상함		.15	.17*	.02	-.02	.09	.15
유아의 스트레스 (총점)		.20*	.22**	.09	.02	.13	.20*

*p<.05, **p<.01

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성이 높을수록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에서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총점이 모두 높음을 보여 준다. 여아를 살펴보면 정서성에서 '스트레스 총점'(r=.22, p<.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남아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불안·좌절감 경험'

(r=.25, p<.01)과 '자존감 상함'(r=.17, p<.05)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남아와 마찬가지로 정서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사회성에서 '불안·좌절감 경험'(r=.17, p<.05)과 '스트레스 총점'(r=.20, p<.05)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변인과 유아의 스트레스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유아의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 결과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서만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r=.17\sim.21, p<.05$),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각 하위변인 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불안·좌절감 경험'과 '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r=.19\sim.20, p<.05$)이 나타나 어머니의 권위적인 양

육행동이 높을수록 '불안·좌절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총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에서는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r=.27, p<.01$), '불안·좌절감 경험'($r=.35, p<.001$), '자존감 상함'($r=.26, p<.01$)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r=.35, p<.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하위영역과 총점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변인과 유아의 스트레스

부모의 월수입에 따라서 유아의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하였다. 그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4.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변인, 부모변인, 가정변인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아동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 부모변인

<표 6> 유아의 부모변인과 유아 스트레스간의 상관계수

(남N=142, 여N=145)

유아의 스트레스	부모변인		母的 學力		父的 學力		母의 취업유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10	.04	.05	.03	.06	-.02		
불안·좌절감 경험	.06	.09	.01	.04	.07	.01		
자존감 상함	.02	-.06	.05	-.04	-.04	.02		
유아의 스트레스 (총점)	.06	.04	.04	.02	.04	.01		

0 : 有, 1 : 無

<표 7>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스트레스 간의 상관계수

(남N=142, 여N=145)

유아의 스트레스	어머니 양육행동		합리적지도		애 정		권 위		과보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15	.06	.13	.16	.12	.06	.18*	.27**		
불안·좌절감 경험	.06	.15	.08	.10	.14	.20*	.17*	.35***		
자존감 상함	.11	.16	.04	.16	.16	.12	.20*	.26**		
유아의 스트레스 (총점)	.11	.16	.09	.16	.16	.19*	.21*	.35***		

* $p<.05$, ** $p<.01$, *** $p<.001$

〈표 8〉 가정의 월수입과 유아의 스트레스간의 상관계수
(남N=142, 여N=145)

가정변인	가정의 월수입	
	남	여
유아의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01	-.02
불안·좌절감 경험	.02	-.07
자존감 상함	.03	.01
유아의 스트레스 (총점)	.02	-.04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변인(월수입)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각 회귀분석에서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령의 주효과를 고려한 후 기질의 세 가지 하위변인과 양육행동의 네 가지 하위변인 그리고 가정변인인 월수입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남아의 경우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에서 정서성($\beta=.21, p<.05$), '불안·좌절감 경험'은 연령($\beta=-.21,$

$p<.05$),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정서성($\beta=.18, p<.05$)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또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13%, '불안·좌절감 경험' 15%, '자존감 상함' 10%,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15%이었다. 여아의 경우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beta=.25, p<.01$), '불안·좌절감 경험'($\beta=.29, p<.01$), '자존감 상함'($\beta=.21, p<.05$)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beta=.30, p<.01$) 모두에서 과보호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14%, '불안·좌절감 경험' 22%, '자존감 상함' 15%,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21%이었다. 즉, 여아 스트레스는 남아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과보호에서 더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아의 형제유무에 따라 유아변인, 부모변인, 가정변인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유아의 연령을 고려한 후 기질의 세 가지 하위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네 가지 하위변인 그리고 가정변인인 월수입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영향력을

〈표 9〉 유아 스트레스의 성별에 따른 유아변인, 부모변인, 가정변인의 회귀분석 (남N=142, 여N=145)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총 점	
		β		β		β		β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독립변인									
연령		.02	-.13	-.21*	-.15	.05	.07	-.09	-.10
기질	정서성	.21*	.04	.12	.15	.13	.15	.18*	.14
	활동성	.05	-.01	.09	.02	.01	-.02	.07	-.00
	사회성	.05	.14	.14	.07	.10	.10	.12	.11
양육 행동	합리적 지도	.11	-.02	-.01	.17	.15	.13	.07	.14
	애정	.14	.13	.11	-.02	.02	.15	.10	.08
	권위	.12	-.04	.12	.05	.13	.03	.14	.02
	과보호	.15	.25**	.14	.29**	.17	.21*	.17	.30**
월수입		-.01	-.04	.00	-.07	.04	-.02	.01	-.06
상수		.18	8.57	17.01	18.06	-1.38	.94	15.80	27.57
R ²		.13	.14	.15	.22	.10	.15	.15	.21
F		2.15*	2.48*	2.67**	4.34***	1.71	2.68**	2.53**	4.09***

* $p<.05$, ** $p<.01$, *** $p<.001$

형제아와 외동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예측 변수의 설명력은 <표 10>와 같이 나왔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형제아의 경우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에서 과보호($\beta=.18, p<.05$), '불안·좌절감 경험'에서는 권위($\beta=.18, p<.05$), 연령($\beta=-.14, p<.0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자존감 상함'에서의 과보호($\beta=.16, p<.05$)와 '스트레스 총점'에서 과보호($\beta=.18, p<.05$)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설명력을 살펴보면,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11%, '불안·좌절감 경험' 15%, '자존감 상함' 12%,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16%이었다. 외동아의 경우 '불안·좌절감 경험'의 과보호($\beta=.49, p<.01$), 정서성($\beta=.27, p<.05$)과 '자존감 상함'에서 과보호($\beta=.39, p<.05$), 정서성($\beta=.33, p<.05$)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에서도 과보호($\beta=.47, p<.01$), 정서성($\beta=.29, p<.05$) 순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21%, '불안·좌절감 경험' 32%, '자존감 상함' 23%,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30%이었다. 즉, 외동아의 스트레스는 형제아에 비해 기질

의 하위변인인 정서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에서의 하위변인인 과보호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3세에서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 부모변인(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변인(월수입)과 유아스트레스간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본 연구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아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에서는 여아가 '자존감 상함'의 스트레스에서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감정적이며 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표 10> 유아 스트레스의 형제유무에 따른 유아변인, 부모변인, 가정변인의 회귀분석

(형제아: N=216, 외동아: N=71)

독립변인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총 점	
		β		β		β		β		β	
		형제아	외동아	형제아	외동아	형제아	외동아	형제아	외동아		
연령											
	정서성	.11	.15	.10	.27*	.08	.33*	.11	.29*		
기질	활동성	.02	.10	.06	.20	-.04	.14	.03	.17		
	사회성	.06	.10	.12	-.13	.14	-.13	.13	-.08		
	합리적 지도	.06	.06	.09	.35	.13	.38	.11	.32		
양육 행동	애정	.15	-.01	.04	-.20	.13	-.23	.11	-.18		
	권위	.05	.03	.18*	-.23	.13	-.11	.15	-.15		
	과보호	.18*	.29	.15	.49**	.16*	.39*	.18*	.47**		
월수입		-.06	.09	-.04	-.03	.04	-.08	-.03	-.02		
상수		4.25	2.63	17.36	18.10	-1.30	.35	20.30	21.07		
R ²		.11	.21	.15	.32	.12	.23	.16	.30		
F		2.71**	1.77	4.18***	3.12**	3.24**	2.03*	4.19***	2.84**		

*p<.05, **p<.01, ***p<.001

(Brody, 1985) '자존감 상함'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3세가 만4·5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상처받기 쉽다는 연구 결과(Wallen et al., 1993)와 일치하며,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인지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Compas, Malcane, & Fondacaro, 1988) 연령이 높을수록 상황에 알맞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첫째 유아가 둘째 이상의 유아보다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홍강의(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가 큰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늘어남으로써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 큰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요소가 되는 것으로 (Dunn & Kendrick, 1980) 이해되어질 수 있다. 유아의 기질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 유아 기질의 하위변인 중 정서성이 높을수록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과 '스트레스 총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Hughes, Pinkerton, & Plewis, 1979; Slee, 1986)과 공격행동이 남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김정택(1978)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남아가 여아에 비해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을 더 많이 경험함에 따라 스트레스를 더욱 높게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이 남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여아의 경우 정서성이 높을수록 남아에게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불안 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는 남아에 비해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보이고 우울, 불안 등 내면적인 증후를 많이 보여 상처를 쉽게 받고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기 때문으로(김민희: 1998, 오명희: 1995, 한미현·유안진: 1996) 이해되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성이 높을수록 '불안 좌절감

경험'과 '스트레스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아의 경우 정서성과 함께 사회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유아의 스트레스와 부모변인(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인 천민필(1993)과 고영미(1995)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며,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김인숙(1992), 한미현(1996) 그리고 Honig(1986)의 보고와 다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 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 모두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하여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어머니가 권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불안 좌절감 경험'과 '스트레스 총점'이 높았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남아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총점'과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모두 높은 정적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Banez & Compas(1990)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거부적이고 권위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녀양육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정변인(월수입)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Creighton(1993)의 연구에서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특히 5세 미만의 유아에게 더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 경제적 지지체계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은 보다 풍부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여 부모의 역할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유아 또한 타인에게 잘 적응하고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이나 스트레스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박응임, 1988; Burts et al. 1990)와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의 월소득을 고려해 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중 상류층으로 편중되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변인, 부모변인, 가정변인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과 '스트레스 총점'에서 여아보다 기질의 하위변인 중 정서성이 높은 영향력이 있었으며, '불안 좌절감 경험'에서는 연령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여아의 경우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과 '불안 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스트레스 총점' 모두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영역 중 과보호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희정(199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대개 우리나라 부모들은 출생 후 3개월까지는 남아에게 더 빈번히 접촉하고 거칠게 다루며, 그 후로부터는 그 정도가 급속히 감소하여 6개월경부터는 여아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여 남아들보다 더 빈번한 언어적 자극과 과보호적 태도를 보이는 등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성취기대와 양육행동이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받게 됨으로써 여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유아의 형제유무에 따라 유아변인, 부모변인, 가정변인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형제아의 경우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 '자존감 상함'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에서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이었고 '불안 좌절감 경험'에서는 권위적 양육행동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다. 한편 외동아의 경우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 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 모두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으로서 형제아에 비해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더욱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김제한(1984)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관심이 높은 나머지 간섭이 많아져 오히려 신경

질적이 되기 쉬우며 이기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자기중심성이 높아 사회 적응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한다. 즉,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부모의 애정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서 지나친 과보호를 받기 쉽고(이상로, 1986) 이러한 지나친 보호와 일종의 간섭으로 인해 외동아들은 더욱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유아변인 중 정서적인 기질적 특성(Garmezy, 1991)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임희수·박성연, 2001)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부모가 유아의 기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부모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한 도시의 일부 유아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만을 관찰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들 스스로가 작성한 질문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분석되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면접과 관찰 등을 병행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관심은 유아변인, 부모변인, 가정변인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으나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만을 기초로 한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의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여러 발달단계에서 스트레스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밝히는 후속연구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고영미(1995).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희정(1998). 유아의 기질과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세권(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희(199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만족도에 따른 유아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1992). 취업모 자녀와 비취업모 자녀의 스트레스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제한(1984). 한 자녀와 다자녀비교 -가정환경요인과 자녀의 지능 및 인생과의 관계.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민하영, 유안진(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 아동학회지, 20(1), 61-77.
- 박미정(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응임(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희정(1995).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정희(1994).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과 그 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영, 정승원(1999). 양육환경과 기관의 질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4), 141-158.
- 엄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명희(1995).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 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로(1986).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이정미(1996).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 유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1996).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 박성연(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천민필(1993).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9.
- 한세영(1995).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강의(1998). 유능한 어린이로 키우기. 어린이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 및 대처 방안.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제6회 학술대회 자료집, 147-174.
- Banez, G. A., & Compas, B. E. (1990). Children's and parents' daily stressful event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591-605.
- Brody, L. R. (1985).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 development: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3, 102-149.
- Brown, L. J. P., Cowen, E. L., Hightower, A. D., & Lotyczewski, B. S. (1986). Demographic differences among children in judging and experiencing specific stressful life ev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 339-346.
- Burts, D. C., Hart, H., Charlesworth, R., & Kirk, L. (1990). A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versus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instruction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19.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Creighton, S. J. (1993). *Child abuse trends in England and Wales 1988-1990*. London: NSPCC.
- Dunn, J. (1992). Sisters and brothers: Current issue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F. Boer & J. Dunn(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 Dunn, J., & Kendrick, C. (1980). The arrival of a sibling: Change in the pattern of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first born chil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1, 119-132.
- _____. (1982). *Siblings: Love, envy & understand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lkind, D. (1987).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 이 현순 · 심성경 · 원영미(역). 서울: 창지사.
- Garn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 459-466
- Grune, A. L., & Brooks, J.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stressful life event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Canada.
- Gunnar, M. R., Larson, M. C., Hertsgaard, L., Harris, M. L., & Brodersen, L. (1992). The stressfulness of separation among nine-month-old infants: Effects of social context variable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3, 290-303.
- Honig, A. S. (1986).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Young Children*, 5, 62-87.
- Hughes, M., Pinkerton, G., & Plewis, I. (1979). Children's difficulties on starting infant scho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187-196.
- Izenberg, J. (1987). Social influences on children. *Childhood Education*, 63, 341-342.
- Johnson, H. L. (1993). Stressful family experiences and young children: How the classroom teacher can help. *Intervention in School & Clinic*, 28, 165-171.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Harcourt Brace Jovanovich, New York.
- McHale, J., Rao, N., & Krasnow, A. (2000). Constructing family climates: Chinese mothers' reports of their co-parenting behaviour preschoolers'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11-118.
- Medeiros, D. C., Porter, B. J., & Welch, I. D. (1983). *Children under st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Parteno, J. (1987). *Children's identification of stress related factor and coping strategi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88. 149.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New finding,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283-305.

- Sandler, I. N. (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1), 41-52.
- Sears, R. (1965). The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3*, 446-492.
- Slee, P. T. (1986).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other factors to children's kindergarten adjustment.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17*, 104-112.
- Wallen, J. (1993). Protec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in dangerous neighborhood. *Children Today, 22*(3).
- Yamamoto, K. (1979). Children's rating of the stressfulness of experi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81-582.

(2004년 4월 30일 접수, 2004년 7월 2일 채택)